국어 영역

제 1 교시

[1 ~ 2] 다음은 심리상담치료사의 강연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치료사 ○○○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행복하신가요? (청중들의 반응을 본 뒤) 학업이나 교우 관계 등으로 스트레스가 많죠?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감을 느끼는지 통계를 낸 자료를 제가 준비했는데요, 여기 도표 한 번 보시죠. (시각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서 행복 지수란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스스로 측정하는 지수인데요, 우리나라의 청소년 행복 지수는 69.29로 경제 협력 개발 기구 국가 중 가장 낮습니다.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주요국 청소년 행복 지수

스페인	1	114.92
그리스	2	113.33
네덜란드	3	111.09
미국	10	102.72
프랑스	16	96.25
대한민국	23	69.29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은 왜 이렇게 행복감이 낮은 걸까요? (청중들의 반응을 살핀 후) 이러한 현상의 원인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심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만족에 대한 비교 이론'을 들어 본 적이 있으세요? 이 이론은 자신이 주관적으로 설정한 기준과 자신의 현 상태와의 상대적 차이에 의해 삶의 만족도가 결정된다는 것인데요,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도 비교 기준에 따라 만족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월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면 자신의 현 상태와의 거리감 때문에 만족도가 떨어지고 자연스럽게 행복감도 낮아지게 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다른 나라 청소년들에 비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타인과의 비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행복 지수가 낮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타인이 아닌 자신의 발전과 성장에 주목할 것을 제안합니다. 꿈과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변화하는 자신의 모습, 여기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지요. 그리고 타인을 비교의 대상이 아닌 협력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비록 경쟁적인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각자 자신의 성장을 발견하고 타인과 협력하면서 살아간다면 행복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행복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족에 대한 비교 이론'에 비추어 볼 때 타인과 자신을 지나치게 비교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행복을 내 안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1. 다음은 위 강연을 위한 계획이다. 강연에서 실현되지 <u>않은</u> 것은?

가. 강연 유형

정보 전달을 바탕으로 한 설득적 말하기 ····· ①

나. 청중 분석

○ 대상: 청소년

○ 특성: 학업이나 교우 관계 등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음. ····· ②

다. 강연 전략

○ 도입부에 청중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일화를 제시함. ····· ③

○ 강연 중에 질문을 건넴으로써 청중과의 상호 작용을 유도함. ····· ④

○ 마지막에 강연 내용과 관련하여 청중에게 당부하는 말을 덧붙임. ····· ⑤

2. <보기>는 위 강연을 들으면서 학생들이 보인 반응이다. <보기>에 드러난 학생들의 듣기 전략을 파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 보 기 〉

· 학생 1: 요즘 나도 성적 문제로 고민이 많아서 그런지 행복하다고 느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

· 학생 2: 행복 지수에 관한 통계 자료의 출처가 없는데? 통계 자료의 출처가 어디인지 찾아봐야겠어.

· 학생 3: 행복 지수가 낮은 이유를 심리적 측면에서만 고려한 것 같아. 다른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 학생 4: 타인과의 비교로 인해 행복 지수가 낮아진다는 주장의 근거로 '만족에 대한 비교 이론'을 제시하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

· 학생 5: 행복 지수가 낮다는 점을 언급하고 그 원인을 밝혔으니, 행복 지수를 높이는 방안도 제시하겠군. 어떤 방안이 있는지 자세히 들어봐야겠어.

① '학생 1'은 강연의 도입부에 제시된 자료의 내용에 공감하며 들었다.
② '학생 2'는 강연에 활용된 자료가 신뢰할 만한지 점검하며 들었다.
③ '학생 3'은 강연자의 주장이 실현 가능한지를 판단하며 들었다.
④ '학생 4'는 강연자의 주장에 타당한 근거가 있는지 판단하며 들었다.
⑤ '학생 5'는 강연의 내용을 구조적으로 파악하여 예측하며 들었다.

3. 다음은 라디오 대담의 일부이다. 대담 참여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진행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물 소비량이 크게 늘었다는데요, 오늘은 전문가를 모시고 물 절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전문가: 네, 안녕하세요?
진행자: 선생님, 물을 아끼고 절약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물 소비량에 대한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면서요?
전문가: 네, 최근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하루에 1인당 약 395리터를 사용하는데, 이는 OECD 주요 국가에 비해, 작게는 3배, 크게는 10배 정도 많은 것입니다.
진행자: 그래요?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네요. 이렇게 물을 많이 쓰다 보면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전문가: 맞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시 주민들은 극심한 가뭄을 겪었는데요, 결국 식수난까지 겪게 되자 인근 △△시에서 수돗물을 공급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전체에 가뭄이 든다면 더욱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진행자: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물 절약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전문가: 양치질을 할 때는 컵에 물을 받아서 하고, 빨래는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 등 물 절약을 생활화하고 친환경 세제를 사용하는 것이 물 절약에 큰 도움이 됩니다.

① 진행자는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질의하며 대담을 이어가고 있다.
② 진행자는 전문가의 설명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③ 진행자는 전문가의 말에 호응하고 가정적 상황에 대해 질문하며 발언을 유도하고 있다.
④ 전문가는 실제 사례를 언급하며 청취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⑤ 전문가는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진행자가 궁금해 하는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4 ~ 5] 다음은 대화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지훈: 용우야, ㉠ <u>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어?</u>
용우: 응, 무슨 일이야?
지훈: 요즘 네가 동아리 회의에 잘 나오지 않아서 말이야. ㉡ <u>넌 유머 감각이 풍부해서 우리 동아리의 활력소잖아.</u> 요새 무슨 일 있어?
용우: 어, 그게……. 사실 요즘 고민이 좀 있어서…….
지훈: 그래? 무슨 고민인데? ㉢ <u>내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얘기해 봐.</u>
용우: 지난 번 축제 준비를 하면서 규현이와 말다툼을 했거든. 나는 우리 동아리가 천연 비누 만들기, 과학 골든벨 같은 재미있는 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규현이는 한 가지만 준비하는 데도 시간이 모자란다면서 내 의견을 무시하는 거야. 크게 싸운 건 아닌데 규현이를 보면 괜히 어색해서 회의에 가지 않은 거야.
지훈: [A]
용우: …….
지훈: ㉣ <u>나도 네 생각처럼 재미있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 그런데 한 가지 활동에 집중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u> 다음 회의 시간에 다시 한 번 의논해 보자. 근데 그렇게 다양한 활동을 떠올리다니 넌 참 아이디어가 풍부한 것 같아.
용우: ㉤ <u>아니야. 그냥 이것저것 관심이 많을 뿐이야.</u> 어쨌든 규현이랑 더 어색해지긴 싫으니까 화해할 방법을 찾아 봐야겠어.
지훈: 그래, 나도 도와줄게.

4.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 상대방의 의사를 물어보는 방식을 통해 상대방이 대화에 응하지 않았을 때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군.
② ㉡: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부각함으로써 상대방이 필요한 존재임을 인식시키고 있군.
③ ㉢: 문제의 책임을 자신의 탓으로 돌림으로써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군.
④ ㉣: 상대방의 의견을 인정한 다음 자신의 생각을 밝힘으로써 상대방을 존중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군.
⑤ ㉤: 상대방의 칭찬에 대해 자신을 낮춤으로써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군.

5. <보기>의 ⓐ, ⓑ를 모두 반영하여 말할 때, [A]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공감적 듣기의 핵심은 적절한 반응을 통해 상대방의 말을 적극적으로 듣고 있음을 상대방에게 보여 주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에는 ⓐ <u>상대방이 한 말을 다시 진술하거나</u>, ⓑ <u>감정 이입을 통해 상대방의 정서적 상태를 추측하여 말해 주는 것</u> 등이 있다.

① 일단 규현이와 화해를 하는 것이 좋겠다. 네 마음이 편해져야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할 수 있을 테니까.
② 축제 준비하면서 규현이랑 말다툼 했다고? 서로의 입장을 고려해서 조금씩만 양보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③ 난 네가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했어. 그런데 규현이랑 어색해져서 회의 시간에 안 온 거였구나.
④ 규현이가 네 의견을 무시했었구나. 너는 열심히 해 보려고 한 건데 규현이가 그런 태도를 보여서 정말 속상했겠다.
⑤ 나라도 정말 화가 났을 것 같아. 근데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규현이와 진정한 친구 사이임을 증명하는 게 아닐까?

[6～7] <보기>는 '청소년의 사이버 괴롭힘을 근절해야 한다.'는 주제로 논설문을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보 기 〉

(가) 신문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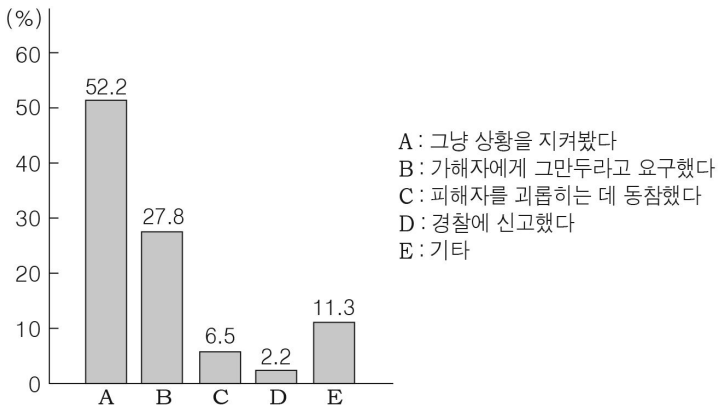
최근 사이버 괴롭힘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증가하고 있다. 사이버 괴롭힘은 인터넷이나 모바일 서비스 등을 이용해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동의 없이 노출시키는 것, 상대방을 놀리거나 험담하는 것 등의 유형으로 나타난다. 피해자 중의 93%는 슬픔과 우울함, 학교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고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이러한 사이버 괴롭힘을 청소년의 일반적 문화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청소년 대상 설문 조사

1. 사이버 괴롭힘을 하는 이유(복수 응답)

이유	비율(%)
재미나 호기심 때문에	83.2
다른 사람들도 많이 해서	67.1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되갚아 주려고	55.4
기타	10.9

2. 사이버 괴롭힘을 목격했을 때의 행동



(다) 전문가 의견

온라인상의 정보들은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짧은 시간에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완전한 삭제가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는 불특정 다수에 의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사이버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관련 법률과 규정을 보완·강화하고, 학교에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6. 글을 쓰는 과정에서 <보기>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나)-1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단순하고 감정적인 이유로 사이버 괴롭힘을 하고 있는 실태를 보여준다.
② (나)-2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방관자적 태도가 사이버 괴롭힘이 근절되지 않는 원인의 하나임을 제시한다.
③ (다)를 활용하여, 사이버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심리 치료가 필요함을 제시한다.
④ (가)와 (나)-1을 활용하여,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이 부족함을 부각한다.
⑤ (가)와 (다)를 활용하여, 사이버 괴롭힘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근거로 사이버 괴롭힘 근절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7. 청소년의 사이버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홍보 문구를 만들고자 한다. <조건>에 따라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조 건 〉

○ (가)에서 제시한 사이버 괴롭힘의 유형을 언급할 것.
○ 비유와 대구의 표현 방법을 활용할 것.

① 상처받은 친구 마음, 치유하는 우리 우정
인터넷은 우리들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② 놀림 받아 학교 가는 것이 힘든 친구에게
따뜻한 미소처럼, 환한 댓글을 선물해 봅시다.
③ 내가 올린 장난의 댓글, 벗이 느낀 마음의 고통
친구에 대한 가벼운 놀림도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④ 내 맘대로 올린 친구 사진, 나 모르게 흐른 친구 눈물
사소해 보이는 정보라도 천금같이 소중히 다룹시다.
⑤ 친구들이 휴대폰으로 험담을 보내려 할 때,
당신의 용기 있는 말 한마디, 친구에겐 밝은 햇살이 됩니다.

8. <보기>는 '작은영화관'에 관한 신문 기사를 보고 학생이 작성한 글쓰기 계획이다.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신문 ○○○○년 ○월 ○일

정부는 지역 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영화 관람과 관련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작은영화관' 건립을 지원하기로 했다. '작은영화관' 정책은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50석 내외의 영화관을 건립하고, 대도시 지역과 동시에 최신 개봉영화를 상영하되 관람 요금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대도시 지역보다는 낮게 책정하는 것이다.

〈 보 기 〉

목적: 우리 지역에 '작은영화관' 건립
예상 독자: 정부 문화 정책 관련 부서 담당자
글의 유형: 건의문 ····· ㉠

<내용 구성 방향>
1. 건의 사항 제시 ····· ㉡
2. 건의 배경 및 현재 상황에서의 문제점 제시 ····· ㉢
3. 건의 사항 수용 시 기대되는 효과 ····· ㉣
4. 건의 내용 요약 및 수용 촉구 ····· ㉤

① ㉠을 고려하여 내용 구성의 처음과 끝에 정중한 인사말을 넣어야겠어.
② ㉡에는 건의 사항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작은영화관' 건립을 요청하는 의견을 직접적으로 제시해야겠어.
③ ㉢에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영화 관람에 대한 욕구 및 타 지역 영화관 이용 시 불편사항 등을 언급해야겠어.
④ ㉣에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문화생활이 증진됨은 물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됨을 제시하여 설득력을 높여야겠어.
⑤ ㉤에는 '작은영화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영화관 건립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변화를 촉구해야겠어.

[9 ~ 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과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학교를 홍보하는 내용의 글을 써 보자.

[학생의 글]

안녕하세요. 저는 ○○고 1학년에 재학 중인 ○○○입니다. 요즘 고등학교 진학 문제로 고민이 많을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 ○○고를 ㉠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 학교의 가장 큰 자랑은 학생이 ㉡ 주인입니다. 학생회가 직접 축제와 같은 학교 행사를 주도하고 자치 법정을 운영하는 등 학생 자치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학교는 진로와 관련된 동아리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발명, 문예, 언론,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동아리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어, 진로에 대한 고민과 관심이 많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학교 주관의 진로 관련 적성 검사는 진로 선택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는 최적의 학습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 또한 그 도서관에는 400석 규모의 자습실이 마련되어 있어 시험 기간에도 쾌적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최신식 도서관을 건립했는데 그곳에는 3만 5천여 권의 장서가 있고,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디지털 학습관도 있습니다.

학생이 주인이 되는 학교, 진로 관련 동아리가 활성화된 학교, 최적의 학습 환경을 갖춘 학교! 우리 학교를 ㉤ 선별하면 여러분의 소중한 학창 시절을 더욱 멋진 시간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9. 다음은 '작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구상한 전략이다. '학생의 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내용을 항목화하여 전달력을 높인다. ····· ①
- 예상 독자의 상황을 환기하여 관심을 유발한다. ····· ②
- 개인적인 경험을 제시하여 독자와의 공감대를 형성한다. ·· ③
- 핵심 내용을 다시 언급하여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한다. ·· ④
- 예상 독자가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제시하여 설득력을 높인다. ·· ⑤

10. ㉠ ~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은 어법에 어긋난 표현이므로 '소개시켜 주려고'로 고친다.
② ㉡은 문장의 호응을 고려하여 '주인이라는 점입니다'로 수정한다.
③ ㉢은 글의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므로 삭제한다.
④ ㉣은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 뒷문장과 위치를 바꾼다.
⑤ ㉤은 문맥에 맞지 않는 단어이므로 '선택'으로 바꾼다.

11. <보기>는 문법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선생님: 단어는 자립할 수 있는 말이나 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에 붙으면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이고, 형태소는 일정한 의미를 지닌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뜻합니다. 다음 문장을 단어와 형태소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문장	나는 풋사과를 먹었다.							
⇓								
단어	나	는	풋사과		를	먹었다		
⇓								
형태소	나	는	풋	사과	를	먹	었	다

① '는', '를'의 경우는 자립성이 없는 형태소이지만 단어로 인정되고 있군.
② '었'은 자립할 수 없는 형태소로 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와 결합하고 있군.
③ '는', '를', '었', '다'를 보니, 문법적 기능을 하는 말도 형태소에 해당함을 알 수 있군.
④ '풋사과', '먹었다'는 단어 중에서 더 작은 단위인 형태소로 분석되는 경우로군.
⑤ '먹'을 보니, 실질적 의미가 있는 형태소 중에서 단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군.

12.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음운 변동이란 어떤 음운이 일정한 환경에서 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음운 변동의 유형으로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한 음운이 단순히 없어지는 탈락, 인접한 두 음운이 합쳐져서 제3의 음운으로 바뀌는 축약, 없던 음운이 새로 생기는 첨가가 있습니다.

〈보기 2〉

[학습 활동] 단어의 음운 변동 현상에 해당하는 용례를 쓰시오.

[활동 결과]

유형	용례
음운 교체	신라[실라], 낫[낟] ····· ㉠
음운 탈락	좋아[조:아] ····· ㉡
음운 축약	국화[구콰], 부엌에[부어케] ····· ㉢
음운 첨가	담요[담:뇨] ····· ㉣

① ㉠: '신라'는 '낫'과 달리 인접 음운의 영향을 받아 음운이 교체되는 경우군.
② ㉡: '좋아'는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경우군.
③ ㉢: '국화'는 'ㄱ'이 'ㅎ'과 합쳐져 'ㅋ'으로 축약된 경우군.
④ ㉢: '부엌에'는 'ㅋ'이 첨가되므로 음운 첨가의 용례로 옮겨야 해.
⑤ ㉣: '담요'처럼 'ㄴ'이 첨가되는 용례는 '눈요기'를 들 수 있어.

13. <보기>를 바탕으로 한글 맞춤법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제15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 ㉮
예 먹어(○)/머거(×), 좋고(○)/조코(×)

[붙임 1]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고, 그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 ㉯
(1)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
예 늘어나다
(2) 본뜻에서 멀어진 것
예 사라지다, 쓰러지다

[붙임 2]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는 '요'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 '오'로 적는다. ····· ㉰
예 이리로 오시오.

① ㉮를 보니, 어간이 표시하는 의미와 어미가 표시하는 의미가 쉽게 파악될 수 있게 표기한 것이라 할 수 있군.
② '고개를 넘어 가다.'에서 '넘어'로 적는 것은 ㉮의 '먹어'를 표기할 때 적용된 규정을 따른 것이군.
③ '격차가 벌어지다.'에서 '벌어지다'로 적는 것은 ㉯의 '사라지다'를 표기할 때 적용된 규정을 따른 것이군.
④ '교실로 들어가다.'에서 '들어가다'로 적는 것은 ㉯의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이군.
⑤ '이것이 당신 것이오?'에서 '것이오'로 적는 것은 ㉰의 '오시오'를 표기할 때 적용된 규정을 따른 것이군.

14.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지완: (밖에서 들어오며) 어휴, 춥다! (무릎 담요를 가리키며) ㉠ 그것 좀 줘봐.
원세: (담요를 건네주며) 많이 추워? 그럼 ㉡ 저 난로 옆으로 가서 몸 좀 녹여. 일기예보에서는 날이 풀린다고 하던데.
지완: 나도 ㉢ 그렇게 뉴스에서 들었거든. 그런데도 좀 춥네.
원세: ㉣ 그나저나 너, 다음 주에 제출할 작품은 다 완성했니?
지완: ㉤ 그거? 천천히 하면 되지 뭐.
원세: (웃으며) 넌 여전히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일을 하는구나.

① ㉠은 '지완'이 지시하는 대상이 '원세'에게 가까이 있음을 나타낸다.
② ㉡은 '원세'가 지시하는 대상을 '지완'이도 볼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③ ㉢은 '원세'가 직전에 한 말을 대신 표현하여 담화의 중복을 피한다.
④ ㉣은 지금까지 둘이 나눈 대화의 화제를 다른 데로 돌리는 기능을 한다.
⑤ ㉤은 '지완'이 지시하는 대상이 자신이 이미 언급했던 대상임을 나타낸다.

15. <보기>의 ㉠에 들어갈 예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문장을 정확하게 구사해야 한다. "이 옷은 참 잘 어울린다."는 서술어인 '어울린다'가 필요로 하는 부사어가 빠져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문장이다. 이와 같이 문장에 필요한 성분이 빠져 있는 또 다른 문장의 예는 다음과 같다.

㉠

① 내 친구 영수는 얼굴이 닮았다.
② 그는 하얀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③ 기상청에서는 눈이 내릴 것이라고 미리 예고했다.
④ 저희는 소중한 고객님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⑤ 그는 절대로 그가 하고 싶은 일을 결국에는 하고야 말았다.

[16 ~ 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역사가 삶을 가르치고 삶을 규정하는 조건이라면, 삶이 역사와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가질 때 역사의 올바른 의미가 드러나는 것일까? 역사는 삶에 ⓐ 기여해야 한다. 삶이 역사와 관계를 맺는 것을 '기념비적 역사', '골동품적 역사', '비판적 역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기념비적 역사는 과거의 위대함에 대한 회상을 통해 새로운 위대함의 가능성을 ⓑ 촉진하는 역사이다. 이는 '인간'의 개념을 더욱 확대하고 아름답게 성취하게 하여 인간 현존의 모습을 보다 차원 높게 만든다. 그러나 기념비적 역사를 통해 과거의 위대함이 우상 숭배적으로 찬양되어 생성과 변화가 무시된다면, 역사적 상황이나 시대적 필요와 아무 관련이 없는 특정한 위대함에 대한 광신주의가 탄생할 것이다. 과거에 대한 일방적 의미 규정, 특정한 역사적 위대함에 대한 숭배와 모방의 강요는 기념비적 역사가 지닌 위험이다.

㉡ 골동품적 역사는 오래된 과거를 찾아 보존하면서 ⓒ 전승하는 역사이다. 여기에서는 실증적 사실의 확인은 중요하지 않다. 골동품적 역사는 전통과 매개되어, 인간은 이를 통해 비로소 자신의 유래를 알고 자신을 이해하며 더욱 확장하게 된다. 비범한 대상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하는 기념비적 역사와는 달리 골동품적 역사는 일상적 습관과 관습을 규정하고 보존하며, 민족의 역사적 고유성 속에서 민족 구성원 모두를 결합시키는 귀속성의 감정을 만들어 낸다. 이는 골동품적 역사를 통해 현재의 인간이 전통과 유래를 인식함으로써 행복을 느낀다는 것이다. 그러나 골동품적 역사는 과거에 대한 미라(mirra)적 숭배로 미래적 삶에 대한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낼 수 있다. 이와 함께 그것은 굳은 관습으로 전락할 수 있다. 즉 골동품적 역사는 삶을 단지 보존할 줄만 알 뿐 생산할 줄은 모르게 되는 것이다.

ⓒ 비판적 역사는 과거를 숭상하거나 보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거를 부정하기 위한 역사이다. 비판적 역사의 유용성은 과거의 절대화와 고착화에 ⓓ 대항하여 삶을 과거의 폭력으로부터 해방시킨다는 데 있다. 역사적 전통은 인간에 의해 창출된 것이므로 그 안에는 판결 받아야 할 정치적 특권, 지배적 관습 등이 존재한다. 비판적 역사는 이들을 폭로하고 파괴한다. 이때 판결 기준은 절대적이고 선험적인 정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구에 따른 삶 자체이다. 비판적 역사는 보존되고 전승된 과거와 투쟁을 벌여 새로운 관습과 본능을 창안하고자 한다. 인간은 비판적 역사를 통해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과거를 만들고 정당화하는 것이다. 비판적 역사 역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억압과 지배로부터 해방의 의지를 품었으나,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위한 과거 부정의 척도를 세울 수 없는 비판적 역사가는 단지 과거만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인간은 기념비적, 골동품적, 비판적 관점에서 과거를 사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역사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를 통해 역사는 우리의 삶에 의미 있고 ⓔ 유용한 것으로 기능해야 하는 것이다.

16.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중심 화제를 관점에 따라 유형화 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있다.
② 중심 화제와 관련한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③ 중심 화제를 다룬 두 이론의 차이를 설명하고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고 있다.
④ 중심 화제에 대한 통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대되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⑤ 중심 화제의 개념을 정의하며 이론을 소개하고 이론의 발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17.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은 과거의 비범한 대상에 주목한다.
② ㉡은 민족 구성원들의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다.
③ ㉠, ㉢은 과거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형성하고자 한다.
④ ㉠과 달리 ㉡, ㉢은 실제적 검증 과정을 중심으로 과거를 해석한다.
⑤ ㉢과 달리 ㉠, ㉡은 과거에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한다.

18.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 조선 시대의 관습이었던 가부장적 가족 제도가 지닌 모순을 밝힘으로써 남녀평등에 근거한 합리적인 가족 제도를 제시하였다.
(나) 이순신 장군을 국가를 구한 영웅으로 높이 평가하여 동상을 세우고 특정한 날을 기념일로 정하고 있다.
(다)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과거의 정치 공동체로 알려진 고조선을 우리 역사의 시작으로 규정하고 단군을 우리의 시조로 만들어 우리 스스로를 단군의 자손으로 설정했다.

① (가)에서 가부장적 가족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절대적인 정의에 근거한 것이겠군.
② (가)에서 제시한 새로운 가족 제도는 과거에 대한 부정을 통해 창안한 새로운 관습으로 볼 수 있군.
③ (나)는 이순신의 위대함을 기리고 보존함으로써 인간 현존의 모습을 보다 높은 차원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겠군.
④ (다)에서 단군을 시조로 만들 때, 단군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겠군.
⑤ (다)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단군의 자손임을 인식하게 하여 한 민족으로서의 귀속성을 느끼게 하기 위한 것이겠군.

19. ⓐ ~ ⓔ를 바꾸어 쓴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이바지해야
② ⓑ: 나타내는
③ ⓒ: 이어 가는
④ ⓓ: 맞서
⑤ ⓔ: 쓸모 있는

[20 ~ 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신생아가 터뜨리는 첫 울음소리는 독립된 개체로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태아가 엄마의 몸 밖으로 나오면서 태아의 몸은 생존을 위해 극적인 환경 변화에 대응한다. 탄생이라는 인생 최초의 도전 속에서 아기의 몸은 어떤 변화를 겪을까?

폐를 통해 산소를 받아들이는 어른과 달리 태아는 태반과 연결된 탯줄을 통해 산소를 받아들인다. 태반의 산소 농도가 낮은데도 태아가 산소를 얻을 수 있는 것은 ㉠'태아형 적혈구' 때문이다. 태아형 적혈구는 산소 농도가 낮은 곳에서도 산소를 받아들이기 쉬운 성질을 가졌다. 덕분에 태아는 태반에서 효율적으로 산소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태반 호흡을 하던 태아가 출생 순간부터 어떻게 폐호흡을 시작할 수 있을까?

폐호흡을 하지 않는 태아의 폐포(肺胞)는 ㉡폐 서팩턴트*라는 분자가 포함된 폐수(肺水)로 가득 차 있다. 이 분자는 물을 튕겨내는 소수 부분과 물과 친한 친수 부분을 모두 갖고 있다. 태아가 출생하면서 산도*를 지날 때 압력을 받으면 절반 정도의 폐수가 기도를 통해 입으로 배출되며, 첫울음을 울 때 폐포가 압력을 받아 나머지 폐수가 모세혈관 등으로 밀려난다. 폐수가 제거된 폐포는 풍선과 같아 자연스럽게 줄어들려고 한다. 그러나 폐 서팩턴트가 친수 부분을 폐포 쪽으로, 소수 부분을 공기 쪽으로 향한 채 폐포의 안쪽 벽을 둘러싼다. 이때 각 분자의 친수 부분 사이에 서로 전기적인 반발력이 형성되어, 이 힘에 의해 폐포가 찌부러지지 않고 성공적으로 폐호흡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폐호흡이 시작되면서 태아의 심장에는 큰 변화가 일어난다. 태아의 심장은 어른의 심장과 달리 우심방에서 좌심방으로 통하는 '난원공'이라는 문이 열려 있다. 그리고 심장과 폐를 연결하는 혈관에는 태반으로 흐르는 대동맥과 통하는 관이 있다. 이를 동맥관이라 하는데, 심장에서 폐로 가는 혈액을 태반으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폐호흡의 시작과 함께 난원공이 닫히고, 동맥관도 서서히 수축하여 결국 막히게 된다. 이는 태아의 혈액 순환이 어른의 혈액순환과 같은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일어나는 일이다.

어른의 혈액은 좌심실에서 대동맥을 통해 몸 전체로 흐른 뒤 우심방으로 들어온다. 우심방으로 들어온 혈액은 우심실을 거쳐 폐로 이동해서 산소를 공급받고, 좌심방으로 들어온 후 다시 좌심실로 간다. 그러나 태아는 폐호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른과 다른 혈액 순환이 일어난다. 좌심실에서 대동맥을 타고 나간 혈액은 상반신으로 흐른 뒤 우심실로 들어온다. 이 혈액은 산소를 얻기 위해 동맥관을 통해 태반으로 이동한다. 태반에서 산소를 얻은 혈액은 우심방으로 들어온 후 난원공을 거쳐 좌심방, 좌심실로 이동한다. 결국 난원공과 동맥관은 태반호흡 때문에 필수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폐호흡이 시작되면 이들은 기능을 잃어 닫히게 되는 것이다.

태아의 호흡 방식 변화와 이에 따른 혈액 순환의 변화는 엄마의 몸속에서 보호 받던 생명인 태아가 자력으로 호흡을 시작하고 바깥 세상에 적응하기 위한 험난한 대응 과정이다.

* 폐 서팩턴트: 폐수 속에 포함된 분자의 일종인 계면활성제.
* 산도: 아이를 낳을 때 태아가 지나는 통로.

20. 윗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태아와 엄마의 동행**
– 폐와 심장의 구조를 중심으로

② **끝없는 심장의 진화**
– 혈액 성분의 변화를 중심으로

③ **혈액이 들려주는 생명 이야기**
– 태아형 적혈구의 기능을 중심으로

④ **신생아의 놀라운 적응력**
– 호흡과 심장 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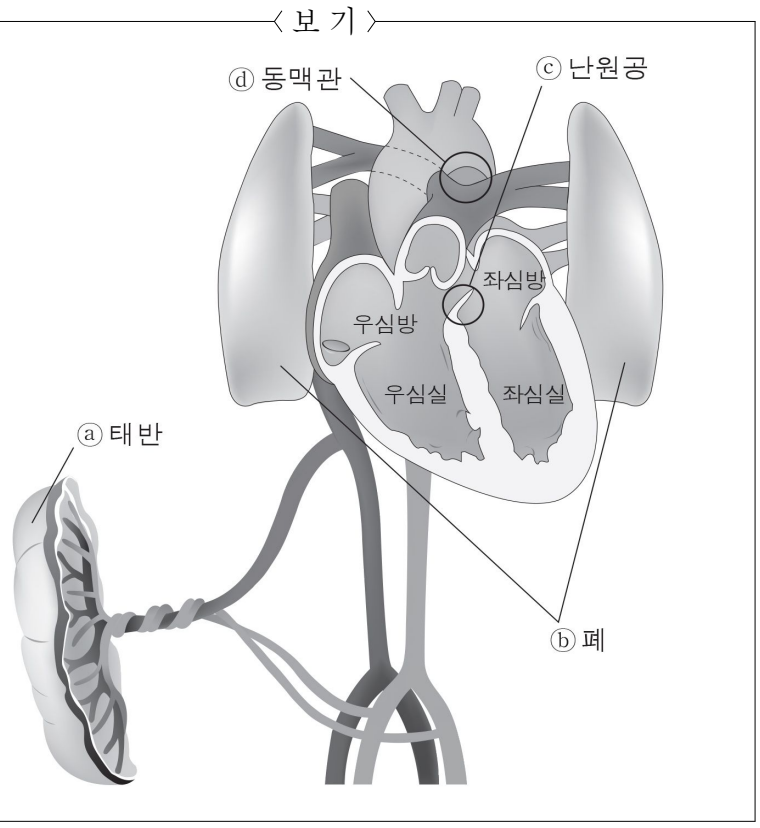
⑤ **생존을 위한 인체의 신비**
– 혈액의 생성 원리와 이동 과정을 중심으로

21.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은 산소 농도가 낮은 곳에서도 산소를 잘 받아들인다.
② ㉠은 태아가 출생하면서 모세혈관으로 밀려난다.
③ ㉡은 폐포가 찌부러지지 않도록 도와준다.
④ ㉡은 친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모두 갖고 있다.
⑤ ㉠은 태반 호흡에, ㉡은 폐호흡에 관여한다.

22. <보기>는 태아의 혈액 순환과 관련된 기관을 도식화한 것이다. 윗글을 참고할 때,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① ⓐ는 어른의 폐와 같이 혈액에 산소를 공급하는 기능을 한다.
② ⓒ, ⓓ 모두 태아가 출생하여 폐호흡을 하게 되면 그 기능을 상실한다.
③ ⓓ는 우심실로 들어온 혈액을 ⓐ로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
④ 우심방으로 들어온 혈액은 ⓒ를 거쳐 좌심방으로 이동한다.
⑤ ⓑ가 활성화된 후 ⓓ가 ⓒ보다 더 빨리 변화를 일으킨다.

[23～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씨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악기를 구입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을까? 이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이 도움을 줄 수 있다. 약칭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전자상거래나 통신 판매에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안전한 구매를 위해 A 씨는 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보호 장치를 잘 이해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선 판매자의 신원 정보 확인, 청약확인 등을 거쳐야 한다. 신원 정보 확인이란 판매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쇼핑몰 초기 화면에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청약확인은 소비자의 계약 체결 의사인 청약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대금 결제 전 특정 팝업창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팝업창을 통해 소비자의 컴퓨터 조작 실수나 주문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에스크로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에스크로란 소비자가 지불한 물품 대금을 은행 등 제3자에게 맡겼다가 물품이 소비자에게 배송 완료된 후 구매 승인을 하면 은행에서 판매자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는 거래 안전장치로 결제 대금 예치제라고도 하며, 소비자는 에스크로 가입 여부를 쇼핑몰 초기 화면이나 결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A 씨의 경우, 에스크로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악기를 구입하면 안전한 구매를 할 수 있다. 현재 선불식 현금 거래에서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에스크로에 가입해야 한다. 단, 신용카드 거래의 경우 별도의 시스템을 이용하며, 음원처럼 제3자가 배송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재화의 경우 제품 배송 여부를 에스크로를 통해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의무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장치들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제품 구매 후 소비자 보호 장치로는 청약철회가 있다. 만약 A 씨가 악기를 배송 받았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제품 하자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단, 통상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해야 한다. 하지만 A 씨처럼 단순 변심일 경우 반송비를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제품이 광고 내용과 다를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때에는 A 씨가 제품을 훼손했더라도 청약철회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배송비도 환불받을 수 있다. 아울러 청약 및 철회에 관한 기록들은 5년 동안 보존되므로 분쟁이 생겼을 때 관련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법률이 소비자의 권리만을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 잘못으로 제품이 훼손되었거나, 시간 경과나 사용으로 인해 제품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경우, 서적 등 복제가 가능한 제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 이는 소비자가 의도적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아 판매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3.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분쟁이 생겼을 경우 소비자는 자신의 청약과 관련된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②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는 판매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③ 소비자는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확인함으로써 제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다.
④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것보다 보상에 초점을 둔다.
⑤ 온라인상에서 전자책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에스크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24. ㉠의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소비자가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소비자가 판매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판매자가 소비자의 구매 승인 과정에 관여할 수 있다.
④ 판매자가 물품 대금을 받기까지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소비자가 물품을 직접 확인한 후 구매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25. 윗글을 읽고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 보 기 〉

(가) 김 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아들에게 선물할 축구공을 주문했다. 이틀 후 축구공을 배송 받았는데 포장을 뜯어 본 아들이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당일에 그대로 반품을 요청했다.

(나) 이 씨는 온라인 서점에서 학습 만화책을 주문했다. 이후 홈페이지에서 주문 내역을 다시 확인하지 않았고, 다음날 배송을 받고 무심결에 비닐 포장을 뜯었다. 그런데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던 책을 다시 구매했음을 알게 되어 당일에 반품을 요청했다.

① (가): 김 씨의 청약철회 시점에는 문제가 없군.
② (가): 김 씨는 제품의 반송료를 자신이 부담해야겠군.
③ (가): 판매자는 김 씨의 청약철회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겠군.
④ (나): 판매자는 이 씨의 청약철회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겠군.
⑤ (나): 이 씨가 주문 내용을 꼼꼼히 확인했다면 반품을 요청할 필요가 없었겠군.

[26 ~ 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최근 컴퓨터로 하여금 사람의 신체 움직임을 3차원적으로 인지하게 하여, 이 정보를 기반으로 인간과 컴퓨터가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다. 리모컨 없이 손짓으로 TV 채널을 바꾼다거나 몸짓을 통해 게임 속 아바타를 조종하는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때 컴퓨터가 인지하고자 하는 대상이 3차원 공간 좌표에서 얼마나 멀리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인데 이를 '깊이 정보'라 한다.

깊이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우선 수동적 깊이 센서 방식이 있다. 이는 사람이 양쪽 눈에 보이는 서로 다른 시각 정보를 결합하여 3차원 공간을 인식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두 대의 카메라로 촬영하여 획득한 2차원 영상들로부터 깊이 정보를 추출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식은 두 개의 영상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므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한 한쪽 카메라에는 보이지만 다른 카메라에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깊이 정보를 얻기 어렵다. 두 카메라가 동일한 수평선상에 정렬되어 있어야 하고, 카메라의 광축도 평행을 이루어야 한다는 제약 조건도 따른다.

그래서 최근에는 능동적 깊이 센서 방식인 TOF(Time of Flight) 카메라를 통해 깊이 정보를 직접 획득하는 방법이 주목받고 있다. TOF 카메라는 LED로 적외선 빛을 발사하고, 그 신호가 물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 차를 계산하여 거리를 측정한다. 한 대의 TOF 카메라가 1초에 수십 번 빛을 발사하고 수신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밝기 또는 색상으로 표현된 동영상 형태로 깊이 정보를 출력한다.

㉠ TOF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빛을 발사하는 조명과, 대상으로부터 반사되어 돌아오는 빛을 수집하는 두 개의 센서로 구성된다. 그중 한 센서는 빛이 발사되는 동안만, 나머지 센서는 빛이 발사되지 않는 동안만 활성화된다. 전자는 A 센서, 후자는 B 센서라 할 때 TOF 카메라가 깊이 정보를 획득하는 기본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조명이 켜지면서 빛이 발사된다. 동시에, 대상으로부터 반사된 빛을 수집하기 위해 A 센서도 켜진다. 일정 시간 후 조명이 꺼짐과 동시에 A 센서도 꺼진다. 조명과 A 센서가 꺼지는 시점에 B 센서가 켜진다. 만약 카메라와 대상 사이가 멀어서 반사된 빛이 돌아오는 데 시간이 걸려 A 센서가 활성화되어 있는 동안에 A 센서로 다 들어오지 못하면 나머지 빛은 B 센서에 담기게 된다. 결국 대상으로부터 반사된 빛이 A 센서와 B 센서로 나뉘어 담기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대상과 카메라 사이가 가까울수록 A 센서에 누적되는 양이 많아지고, 멀수록 B 센서에 누적되는 양이 많아진다. 이렇게 A, B 각 센서에 누적되는 반사광의 양의 차이를 통해 깊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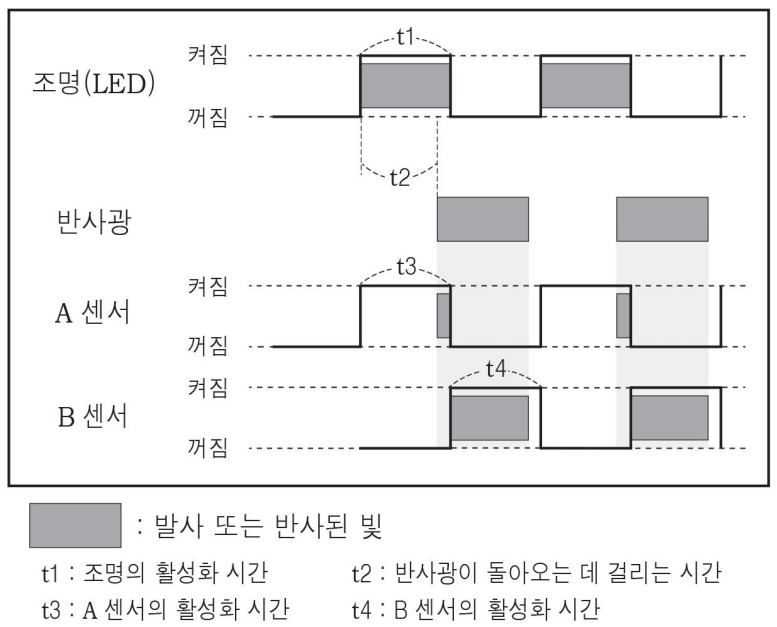
TOF 카메라도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적외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태양광이 있는 곳에서는 사용하기 어렵고, 보통 10m 이내로 촬영 범위가 제한된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깊이 정보를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26.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능동적 깊이 센서 방식은 실시간으로 깊이 정보를 제공해 준다.
② 능동적 깊이 센서 방식은 한 대의 카메라로 깊이 정보를 측정할 수 있다.
③ 수동적 깊이 센서 방식은 사람이 3차원 공간을 인식하는 방법과 유사하다.
④ 수동적 깊이 센서 방식은 두 대의 카메라가 대상을 앞과 뒤에서 촬영하여 깊이 정보를 측정한다.
⑤ 컴퓨터가 대상을 3차원적으로 인지하기 위해서는 깊이 정보가 필요하다.

27. <보기>는 TOF 카메라의 깊이 정보 측정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① 카메라와 물체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t2는 길어진다.
② t1과 t2가 같다면 반사광은 t4 동안 B 센서에만 담긴다.
③ 조명이 켜지고 t1의 종료 지점에서 B 센서가 활성화된다.
④ t2에서는 A 센서와 B 센서 모두 반사광을 감지할 수 없다.
⑤ 카메라와 물체 사이의 거리가 0이라면 t2와 t3가 같아진다.

28. 윗글을 읽은 학생이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① 대상의 깊이 정보를 수치로 표현하겠군.
② 햇빛이 비치는 밝은 실외에서 더 유용하겠군.
③ 빛 흡수율이 높은 대상일수록 깊이 정보 획득이 용이하겠군.
④ 손이나 몸의 상하좌우뿐만 아니라 앞뒤 움직임도 인지하겠군.
⑤ 사물이 멀리 있을수록 깊이 정보를 더욱 정확하게 측정하겠군.

[29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신에 대한 관심이 인간에게로 넘어온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에서는 명확하고 사실적인 재현이 가장 중요한 '미(美)의 요소'로 받아들여졌다. '독일 미술의 아버지'라 불리는 알브레히트 뒤러는 북유럽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작가이다.

뒤러가 북유럽 르네상스의 위대한 화가로 명성을 얻은 이유는 그의 뛰어난 판화 작품에서 찾을 수 있다. 판화는 나무, 금속, 돌 같은 딱딱한 표면에 이미지를 만든 후, 잉크를 칠해서 종이를 대고 눌러 영상(映像)을 얻는 기법으로, 뒤러 이전의 판화는 흑백의 대조를 위주로 한 단순한 하급 미술 장르에 머물러 있었다. 그런데 뒤러는 '해칭 기법'을 통해 판화의 단순성을 사실성의 경지로 끌어올렸다. 해칭 기법이란 판화나 소묘에서 사용된 방법으로 가늘고 세밀한 평행선이나 교차선을 활용하여 대상의 입체감이나 음영을 표현하는 묘사법이다. 가령, 밝은 곳에 비해 어두운 곳에 가는 선들을 더 빽빽하게 구성하여 명암을 드러내는 것이다. 뒤러는 이러한 방법으로 대상의 명암과 질감, 양감을 유화 못지않게 표현하여 사실성을 구현하였다.

뒤러의 판화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특징은,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선 원근법'을 실현하여 그림의 사실성을 높였다는 점이다. 선 원근법은 정교한 비례 계산을 통해 가까운 것은 크게, 먼 것은 작게 보이게 하여 공간감과 거리감을 드러내는 원근법이다. 뒤러는 이러한 원근법을 사용하여 실내 배경과 자연의 풍경을 더욱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이탈리아 미술과 북유럽 미술의 특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뒤러 판화의 특징 중 하나이다. 당시 이탈리아에서는 해부학에 근거하여 인체와 동물의 부드러운 선을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는데, 뒤러는 이러한 점을 자신의 작품에 적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북유럽 미술의 특징인 세부 묘사의 정교함과 화면을 가득 채운 여백 없는 구성으로 사실성을 구현하였다.

뒤러 이전의 판화는 회화에 비하여 하위 장르로 인식되어 왔다. 판화는 복제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되면서 판화의 예술적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뒤러는 오늘날의 창작 판화처럼 밑그림부터 판의 새김까지 직접 제작함은 물론, 판화에 사실성이라는 회화적 요소를 구현해 냄으로써 판화가 가지는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어 독자적인 작품으로 인정받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9. 윗글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① 선 원근법의 원리와 효과
② 뒤러 판화의 예술적 의의
③ 판화의 재료와 제작 과정
④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의 특징
⑤ 북유럽과 이탈리아 미술의 대조적 특성

30. 윗글을 읽은 독자가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알브레히트 뒤러, <벽 옆에 있는 성모>

① 가늘고 세밀한 선으로 여인이 입고 있는 옷의 굴곡과 명암을 드러내고 있군.
② 화면을 가득 채운 구성을 통해 풍경을 구성하고 있는 대상들의 단순성을 드러내고 있군.
③ 여인의 허리에 걸려 있는 장식을 세부적으로 정교하게 묘사하여 사실성을 드러내고 있군.
④ 아이의 볼과 팔의 부드러운 선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여 인체의 특징을 실감나게 드러내고 있군.
⑤ 정교한 비례 계산을 통해 가까이 있는 인물들은 크게, 멀리 있는 건물들은 작게 묘사하여 원근감을 드러내고 있군.

[31 ~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용왕이 병이 나서 죽을 지경에 이르자 용궁에서 회의가 열린다. 용왕은 토끼의 간이 병을 낫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신하들에게 토끼의 간을 구해오라고 하나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는다.

[아니리]
한참 이리 헐 적에, 해운공 방게란 놈이 열 발을 쩍 벌리고 엉금엉금 기어 들어오며,
[중중모리]
㉠"신의 고향 세상이라, 신의 고향은 세상이라. 푸른 시냇물에 가만히 몸 숨기어 천봉만학(千峰萬壑)*을 바라봐, 산 중 토끼 달 속 토끼 안면 있사오니, 소신의 엄지발로 토끼 놈의 가는 허리를 바드드드드 집어다가 대왕전에 바치리다."

[아니리]
"아니, 그럼 너도 이놈, 그러면 신하란 말이냐?"
"아, 물고기 떼는 다 마찬가지요."
"어라, 저놈 보기 싫다! 두 엄지발만 똑 떼여 내쫓아라!"
공론이 미결(未決)헐 적에,
[진양조]
영덕전 뒤로 한 신하가 들어온다.
눈이 작고 다리가 짧고, 목이 길며 주둥이가 까마귀 부리처럼 뾰족하도다.
가슴과 배의 등에다 방패를 지고 앙금앙금 기어들어와 몸을 굽혀 공손히 두 번 절하며 상소를 올리거늘,
[아니리]
받아 보니 별주부 자라라.
"네 충성은 지극허나, 세상에를 나가며는 인간의 진미가 되어 자라탕으로 죽는다니, 그 아니 원통허냐?"
별주부 여짜오되,
㉡"소신은 손발이 넷이오라, 물 위에 둥실 높이 떠 망보기를 잘 하와 인간에게 낭패를 당함은 없사오나, 바다 속에서 태어나 토끼 얼굴을 모르오니, 얼굴 하나만 그려 주시면 꼭 잡어다 바치겠나이다."
"아, 글랑 그리하여라."
[중중모리]
"화사자(畵師子) 불러라."
화공을 불러들여 토끼 얼굴을 그린다. 유리 같이 맑은 수면의 동정호처럼 청홍색의 벼루, 수놓은 고운 비단 같은 가을 물결 무늬 거북 연적(硯滴), 오징어로 먹 갈아 양두 화필*을 덤벅 풀어 붉고 푸른 여러 빛깔을 두루 묻히어서 이리저리 그린다.

[A]
천하 명산 승지 강산 경개 보던 눈 그리고,
두견, 앵무, 지지 울 제 소리 듣던 귀 그리어,
봉래, 방장산 운무(雲霧) 중의 내 잘 맡던 코 그리고,
난초, 지초, 왼갖 향초, 꽃 따먹던 입 그리어,
대한(大寒) 엄동 설한풍(雪寒風)의 추위 막던 털 그려,
만화방창(萬花方暢)* 화림(花林) 중의 펄펄 뛰던 발 그려,
신농씨 상백초* 이슬 털던 꼬리라.
두 귀는 쫑긋, 두 눈 도리도리, 허리는 늘씬, 꽁지난 묘똑,
좌편 청산이요, 우편은 녹수라.
녹수 청산의 애굽은 장송(長松), 휘늘어진 양류(楊柳) 속,
들락날락 오락가락 앙그주춤 기난 듯이,

그림 속의 토끼 얼풋 그려,
"아미산월의 반륜퇴*가 이에서 더할소냐. 아나, 엿다, 별주부야, 네가 가지고 나가라."
[아니리]
별주부, 토끼 화상 받어 목덜미 속에 집어 놓고 꽉 옴틀여 놓으니, 물 한 점 들어갈 배 만무하지. 사은숙배 하직한 후에 본댁으로 돌아올 적에, 그때에 주부 모친이 있는듸, 자라라도 수수천년이 되어서 삶아 놔도 먹지 못할 자라였다. 주부 세상에 간단 말을 듣고 울며불며 못 가게 만류를 허는듸,
[진양조]
"여봐라, 주부야, 여봐라, 별주부야. 네가 세상을 간다 허니 무얼 허로 갈라느냐? 장탄식, 병이 든들 어느 뉘가 날 구하며, 이 몸이 죽어져서 까마귀와 솔개의 밥이 된들, 뉘랴 손뼉을 뚜다려 주며 후여쳐 날려 줄 이가 뉘 있더란 말이냐? 여봐라, 별주부야, 위험한 곳에는 들어가지를 말어라."

[아니리]
별주부 여쫘오되,
"나라에 환후 계옵시여 약 구하러 가는 길이오니, 어머니, 너무 근심치 마옵소서."
"내 아들아, 기특허다. 충성이 지극허면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럼 수로 육로 이만 리를 무사히 다녀오너라."
절하고 작별하고 침실로 돌아올 적에, 그때에 주부 마누라가 있는듸, 이놈이 어디로 장가를 들었는고 허니 소상강으로 장가를 들었것다. 택호(宅號)*를 부르며 나오는듸,
"아이고 여보, 소상강 나리, 세상에를 가신다니, 당상(堂上)의 백발 모친 어찌 잊고 가랴시오?"
"오냐, 네가 아이고 지고 운다마는, 내가 너를 못 잊고 가는 일이 하나 있다."
"아, 무슨 일을 그렇게 못 잊고 가세요?"
"다른 게 아니라, 재 너머 남생이란 놈이 제 주제에 덧붙임 사촌간이라 하여 두고 생김생김이 꼭 나와 비슷하니, 가만가만 자주 돌아다니는 게 아마도 내 오래 바라보니 수상허단 말이여. 그놈 몸에서는 노랑내가 나고, 내 몸에는 꼬순내가 나니, 글로 조짐을 잘 알아내어 부디 조심 잘 자렸다."
단단히 단속 후에 수정문 밖을 썩 나서서, 세상 경개를 살피고 나오는듸,
꼭 이렇게 나오든가 부드라.

– 작자 미상, 「수궁가」 –

* 천봉만학: 수많은 산봉우리와 산골짜기.
* 양두 화필: 양쪽에 붓털이 달린 그림 붓.
* 만화방창: 봄이 되어 온갖 사물이 한창 피어남.
* 신농씨 상백초: 신농씨가 맛을 보던 백 가지 풀.
* 아미산월의 반륜퇴: 중국 4대 명산의 하나인 아미산 위에 뜬 반달 속에 보이는 토끼.
* 택호: 벼슬 이름이나 장가 든 지방의 이름을 붙여 그 사람의 집을 이르는 말.

31.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보 기 〉
ㄱ. 풍자적 표현을 통해 대상을 희화화하고 있다.
ㄴ. 규칙적인 음보를 통해 율문체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ㄷ. 음성상징어를 사용하여 대상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ㄹ. 호흡이 빠른 문장을 구사하여 상황의 긴박감을 드러내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2. ㉠과 ㉡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과 달리 ㉡에서는 자신의 성장 배경을 들어 성공 가능성이 높음을 주장하고 있다.
② ㉠은 자신의 경험을, ㉡은 자신의 연륜을 내세워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다.
③ ㉠에서는 겸손한 태도로, ㉡에서는 자신감 있는 태도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다.
④ ㉠과 ㉡은 모두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상대에게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⑤ ㉠과 ㉡은 모두 자신의 신체의 일부를 언급하며 주어진 임무 수행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 보 기 〉

「수궁가」는 청중의 다양성과 판소리 연행의 특징으로 인해 주제가 다층적으로 드러난다. 충, 효, 열과 같은 유교 사회의 전통적인 윤리 규범과 가문 의식, 명망(名望)을 얻으려고 하는 가치관 등을 반영하는 한편, 지배층의 무능과 횡포, 위선적인 면모를 폭로하기도 한다. 이처럼 「수궁가」는 조선 후기 당대의 상충되는 이념적 지향을 대변하는 작품이다.

① 용왕이 육지로 가겠다는 별주부의 의사를 수용하는 것에서 지배층의 무능력한 면모를 파악할 수 있군.
② 방게를 무시하며 두 엄지발만 떼어 내쫓으라고 명령하는 것을 통해 지배층의 횡포를 엿볼 수 있군.
③ 주부 마누라가 노모를 언급하며 별주부를 만류하는 것에서 '효'에 대한 당대인의 윤리 의식을 확인할 수 있군.
④ 별주부가 아내를 단단히 단속한 뒤 집을 나선 것에서 여성에게 정절을 요구하는 당대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군.
⑤ 주부 모친이 용왕을 위해 세상으로 나가려는 별주부를 기특하게 여기는 것에는 '충'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드러나 있군.

34.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이라고 할 때,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별주부가 토끼의 간을 구하기 위해 세상에 나간다는 말이 주부 모친에게 처음에는 (ⓐ)와/과 같은 말이었겠군.

① 감언이설(甘言利說)　② 자화자찬(自畵自讚)
③ 적반하장(賊反荷杖)　④ 조삼모사(朝三暮四)
⑤ 청천벽력(靑天霹靂)

[35 ~ 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강호(江湖)에 병이 깊어 죽림(竹林)에 누웠더니
관동 팔백 리의 방면*을 맡기시니
[A] 어와 성은(聖恩)이야 갈수록 망극하다
연추문 들이달아 경회 남문 바라보며
하직하고 물러나니 옥절*이 앞에 섰다
평구역 말을 갈아 흑수로 돌아드니
섬강은 어디메요 치악이 여기로다
[B] 소양강 내린 물이 어디로 흘러드나
고신(孤臣)* 거국(去國)*에 백발도 많기도 많구나
동주에서 밤 겨우 새워 북관정에 오르니
삼각산 제일봉이 어쩌면 보이리라
[C] 궁예 왕 대궐 터에 오작* 지저귀니
천고(千古) 흥망을 아는가 모르는가
회양 옛 이름이 마침 같을시고
[D] 급장유* 풍채를 고쳐 아니 볼 것인가
영중(營中)*이 무사(無事)하고 시절이 삼월인 적에
화천 시내길이 풍악으로 뻗어 있다
행장(行裝)을 다 떨치고 석경(石逕)*에 막대 짚어
[E] 백천동 곁에 두고 만폭동 들어가니
은 같은 무지개 옥 같은 용의 꼬리
섞여 돌며 뿜는 소리 십 리에 잦았으니
들을 적에는 우레더니 볼 때는 눈이로다

– 정철, 「관동별곡」 –

* 방면: 관찰사의 소임.
* 옥절: 옥으로 만든, 임금이 신표로 주는 패.
* 고신: 외로운 신하.
* 거국: 나라를 떠남. 여기서는 '한양을 떠남'을 의미함.
* 오작: 까마귀와 까치.
* 급장유: 한나라 무제 때의 충신. 회양 태수로 있으면서 백성들을 잘 다스렸다고 함.
* 영중: 관찰사의 관청 안.
* 석경: 돌이 많은 길.

35.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대구의 방식을 활용하여 리듬감을 부여하고 있다.
② 대상을 점층적으로 강조하여 시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③ 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대상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④ 비유의 방식을 사용하여 대상이 지닌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⑤ 영탄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36. [A] ~ [E]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① [A]: '방면'은 자연에 묻혀 있던 화자가 성은에 감격하며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는군.
② [B]: '백발'은 한양에서 멀어지는 상황에 따른 화자의 심리적 상태를 비유한 소재이군.
③ [C]: '오작'만이 지저귀는 '대궐 터'는 옛날 번성했던 모습과 대비되어 화자에게 무상감을 느끼게 하는군.
④ [D]: 화자는 '회양'이 급장유가 선정을 베풀었던 곳의 지명과 같다는 점을 떠올리며 선정의 포부를 품고 있군.
⑤ [E]: '석경'은 화자가 관찰사로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음을 상징하여 선정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군.

[37 ~ 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내가 느닷없이 화제를 바꾸고 나섰다. 별달리 노인을 달랠 말이 없으니, 지나간 일이나마 그렇게 넓게 살던 옛집의 기억을 상기시켜서라도 노인을 위로하고 싶어진 것이리라. 그것은 노인도 한때 번듯한 집 살림을 해온 기억을 되돌이키게 하여 기분을 바꿔드리고 싶어서이기도 하겠지만, 그 외에도 그건 또 언제나 가난한 살림만을 보고 가게 하는 부끄러운 며느리 앞에 당신의 자존심을 얼마간이나마 되살려내게 할 가외의 효과도 있을 수 있었다. 어쨌거나 나는 당분간 다시 자리를 피할 필요가 없어진 셈이다.

"옛날 살던 집이야, 크고 넓었제. 다섯 칸 겹집에다 앞뒤 터가 운동장이었더니라……. 하지만 이제 와서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남의 집 된 지가 이십 년이 다 된 것을……."

"그래도 어머님은 한때 그런 좋은 집도 살아보셨으니 추억은 즐거운 편이 아니시겠어요? 이 집이 답답하고 짜증나실 땐 그런 기억이라도 되살려보세요."

"기억이나 되살려서 어디다 쓰게야. 새록새록 옛날 생각이 되살아나다보면 그렇지 않아도 심사가 어지러운 것을."

"하긴 그것도 그러실 거예요. 그렇게 넓은 집에 사셨던 생각을 하시면 지금 사시는 형편이 더 짜증스러워지기도 하시겠죠. 뭐니 뭐니 해도 지금 형편이 이렇게 비좁은 단칸방 신세가 되고 마셨으니 말씀예요……."

노인과 아내는 잠시 그렇게 위론지 넋두린지 분간이 가지 않는 소리들을 주고받고 있었다.

(중략)

"방이 이렇게 비좁은데 그럼 어머니, 이 옷장이라도 어디 다른 데로 좀 내놓을 수 없으세요? 이 옷장을 들여놓으니까 좁은 방이 더 비좁지 않아요."

아내는 마침내 내가 가장 거북스럽게 시선을 피해오던 곳으로 화제를 끌어들이고 있었다.

바로 그 옷궤 이야기였다. 십칠팔 년 전, 고등학교 1학년 때였다. 술버릇이 점점 사나워져가던 형이 전답을 팔고 선산을 팔고, 마침내는 그 아버지 때부터 살아온 집까지 마지막으로 팔아넘겼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K시에서 겨울방학을 보내고 있던 나는 도대체 일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나 알아보고 싶어 옛 살던 마을엘 찾아가 보았다. 집을 팔아버렸으니 식구들을 만나게 될 기대는 없었지만, 그래도 달리 소식을 알아볼 곳이 없기 때문이었다. 어스름을 기다려 살던 집골목을 들어서니 사정은 역시 K시에서 듣고 온 대로였다. 집은 텅텅 빈 채였고 식구들은 어디론지 간 곳이 없었다. 나는 다시 골목 앞에 살고 있던 먼 친척 간 누님을 찾아갔다. 그런데 그 누님의 말을 들으니, 노인이 뜻밖에 아직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A] "여기가 어디냐. 네가 누군데 내 집 앞 골목을 이렇게 서성대고 있어야 하더란 말이냐."

한참 뒤에 어디선가 누님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노인이 문간 앞에서 어정어정 망설이고 있는 나를 보고 다짜고짜 나무랐다. 행여나 싶은 마음으로 노인을 따라 문간을 들어섰으나 집이 팔린 것은 분명해 보였다.

그날 밤 노인은 옛날과 똑같이 ㉠ 저녁을 지어 내왔고, 그날 밤을 거기서 함께 지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 일찍 K시로 나를 다시 되돌려 보냈다. 나중에야 안 일이지만 노인은 그렇게 나에게 저녁밥 한 끼를 지어 먹이고 마지막 밤을 지내게 해주고 싶어, 새 주인의 양해를 얻어 그렇게 혼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했다. 언젠가 내가 다녀갈 때까지는 하룻밤만이라도 내게 옛집의 모습과 옛날 같은 분위기 속에 맘 편히 눈을 붙이고 가게 해주고 싶어서였을 터이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 문간을 들어설 때부터 썰렁한 집안 분위기가 이사를 나간 빈집이 분명했건만.

한데도 노인은 그때까지 매일같이 그 빈집을 드나들며 먼지를 털고 ㉢ 걸레질을 해온 것이었다. 그리고 그때 노인은 아직 집을 지켜온 흔적으로 안방 한쪽에 ㉣ 이불 한 채와 옷궤 하나를 예대로 그냥 남겨두고 있었다. 이튿날 새벽 K시로 다시 길을 나설 때서야 비로소 집이 팔린 사실을 분명히 해온 노인의 심정으로는 그날 밤 그 옷궤 한 가지로나마 옛집의 분위기를 되살려 내 괴로운 잠자리를 위로하고 싶었음에 분명한 물건이었다.

그런 내력이 숨겨져 온 옷궤였다. 떠돌이 살림에 ㉤ 다른 가재도구가 없어서도 그랬겠지만, 이 이십 년 가까이를 노인이 한사코 함께 간직해온 옷궤였다. 그만큼 또 나를 언제나 불편스럽게 만들어온 물건이었다. 노인에게 빚이 없음을 몇 번씩 스스로 다짐하고 지내다가도 그 옷궤만 보면 무슨 액면가 없는 빚 문서를 만난 듯 기분이 꺼림칙스러워지곤 하던 물건이었다.

이번에도 물론 마찬가지였다. 노인의 방을 들어선 순간에 벌써 기분을 불편스럽게 해오던 옷궤였다. 그리고 끝내는 이틀 밤을 못 넘기고 길을 다시 되돌아갈 작정을 내리게 한 것도 알고 보면 바로 그 옷궤의 허물이 컸을지 모른다.

아내도 물론 그 옷궤에 관한 내력을 내게서 들을 만큼 듣고 있었다. 그리고 그걸 알고 있는 여자라면 그 옷궤에 관한 내 기분도 짐작을 못할 그녀가 아니었다. 아내는 일부러 그 옷궤 이야기를 꺼냈음이 분명했다. 더욱이 내가 바깥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엿듣고 있는 걸 알고서 그랬을 수도 있었다.

나는 어느새 콧속을 후벼대는 못된 버릇이 되살아날 만큼 긴장하고 있었다.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갑자기 묵은 빚 문서가 튀어나올 것 같은 조마조마한 기분이었다. 노인이 치사하게 그 묵은 빚 문서로 나를 궁지에 몰아넣으려 덤빌 수도 있었다.

— 그래 보라지. 누가 뭐래도 내겐 절대로 빚진 게 없으니까. 그래 본들 없는 빚이 생길 리가 있을라구.

나는 거의 기구*를 드리듯 눈을 감고 기다렸다.

– 이청준, 「눈길」 –

* 기구: 원하는 바가 실현되도록 빌고 바람.

37.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서술자를 교체하여 새로운 사건을 도입하고 있다.
② 인물들의 다양한 체험을 삽화 형식으로 나열하고 있다.
③ 잦은 장면 전환을 통해 긴박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④ 역순행적 구성을 통해 사건을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⑤ 인물의 외양을 객관적으로 묘사하여 사실성을 강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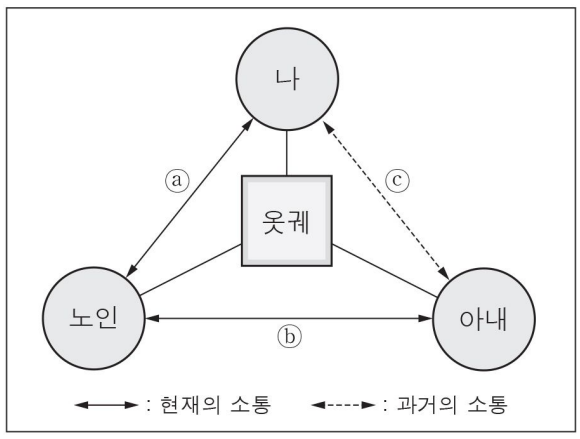
38. ㉠ ~ ㉤에서, [A]에 내재된 인물의 심리가 반영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39.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눈길」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소통 방식은 인물들의 인식과 감정, 인물 간의 관계 등을 드러내며 주제를 구현하는 데 기여한다. 다음은 '옷궤'를 중심으로 한 인물들의 소통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① ⓑ를 엿듣는 '나'는 '옷궤'에 대한 부담감으로 조바심을 느끼고 있군.
② '아내'는 ⓑ를 시도하기 전에 ⓒ를 통해 '옷궤'에 대한 내력을 이미 알고 있었군.
③ '나'는 '옷궤'의 의미를 통해 '아내'와의 소통 부재를 해소하고자 ⓑ를 엿듣고 있군.
④ '아내'는 ⓑ에서 '옛집'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옷궤'에 얽힌 사연을 이끌어 내고 있군.
⑤ '나'는 '아내'가 ⓑ에서 '옷궤'의 이야기를 이끌어 내어 ⓐ가 우회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의도했다고 추측하는군.

[40 ~ 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발목까지
발밑까지 눕는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 김수영, 「풀」 –

(나)

눈 내려 어두워서 길을 잃었네
갈 길은 멀고 길을 잃었네
눈사람도 없는 겨울밤 이 거리를
찾아오는 사람 없어 노래 부르니
눈 맞으며 세상 밖을 돌아가는 사람들뿐
등에 업은 아기의 울음소리를 달래며
갈 길은 먼데 함박눈은 내리는데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기 위하여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을 용서하기 위하여
눈사람을 기다리며 노랠 부르네
세상 모든 기다림의 노랠 부르네
눈 맞으며 어둠 속을 떨며 가는 사람들을
노래가 길이 되어 앞질러 가고
돌아올 길 없는 눈길 앞질러 가고
아름다움이 이 세상을 건질 때까지
절망에서 즐거움이 찾아올 때까지
함박눈은 내리는데 갈 길은 먼데
무관심을 사랑하는 노랠 부르며
눈사람을 기다리는 노랠 부르며
이 겨울 밤거리의 눈사람이 되었네
봄이 와도 녹지 않을 눈사람이 되었네

– 정호승, 「맹인 부부 가수」 –

40.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계절감을 드러내어 시의 주제를 강화한다.
② 유사한 어구를 반복하여 시적 상황을 부각한다.
③ 의성어를 활용하여 구체적인 생동감을 부여한다.
④ 반어적 표현을 통해 대상이 지닌 의미를 강조한다.
⑤ 상승과 하강 이미지를 교차하여 시적 분위기를 환기한다.

41.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시는 시상이 전개될수록 점점 강화되는 억압과 그 상황에 대처하는 풀의 움직임을 다양한 부사어를 활용하여 형상화하고 있다. 시상 전개에 따른 풀의 움직임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1연	⇨	2연	⇨	3연
바람 때문에 눕고 우는 풀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는 풀		바람보다 먼저 웃는 풀

① 1연에서 '드디어'는 풀이 억압적인 상황에 대한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했음을 나타낸다.
② 1연에서 '더', '다시'는 풀이 눕고 우는 모습을 수식하여 풀에 가해진 시련이 만만치 않음을 나타낸다.
③ 2연에서 '빨리'와 '먼저'는 풀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④ 3연에서 '발목까지', '발밑까지'는 풀이 눕는 강도가 더 심해지는 것으로 풀에 대한 억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⑤ 3연에서 '늦게', '먼저'는 억압적인 상황이 풀의 내적 성숙을 지연시키고 있음을 부각한다.

42.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시인은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맹인 부부 가수의 모습을 통해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적 세계의 단면을 제시하고 있다. 앞날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시대 현실 속에서, 가난하고 고단한 삶을 영위하면서도 기다림의 자세로, 사랑과 화해로 이루어질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민중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① '눈사람도 없는 겨울밤 이 거리'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부정적인 현실 상황을 비유한 것이겠군.
②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기 위하여',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을 용서하기 위하여'에서 사랑과 화해를 지향하는 시인의 바람을 엿볼 수 있군.
③ '눈 맞으며 어둠 속을 떨며 가는 사람들'은 암울한 현실 속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민중을 의미하는 것이겠군.
④ '아름다움이 이 세상을 건질 때까지', '절망에서 즐거움이 찾아올 때까지'에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⑤ '봄이 와도 녹지 않을 눈사람'은 희망의 시간이 와도 민중에게 시련과 고통이 여전히 지속될 것임을 나타낸 것이군.

[43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14살의 어린 사미승 도념은 자신을 버리고 떠난 어머니를 애타게 그리워한다. 아들의 재를 지내기 위해 서울에서 내려온 미망인은 이런 도념에게 애틋한 정을 느껴 도념을 수양아들 삼아 데려가고 싶어 하지만 주지 스님은 도념을 세상에 내보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132 일주문

도념 (홀연히) 스님 저는 세상에 나가서 살고 싶어요. 절더러 거짓말 한다구만 그러지 마시구, 저한테 어머니 계신 데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지 ㉠ 이게 무슨 죄받을 소리니? (조용히 달래며) 어서 법당으로 들어가자. 가서 부처님께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해!
도념 …….
주지 도념아, 너 저 연못을 봐라. 5월이 되면 꽃이 피고, 잎사귀엔 구슬 같은 이슬이 구르고 있지 않니? 저렇게 잔잔한 연못두 한 겹 물만 퍼내구 보면 시꺼먼 개흙투성이야. 그것뿐인 줄 아니? 10년 묵은 이무기가 용이 돼서 하늘로 올라갈랴구 혓바닥을 낼름거리며 비 오기만 기다리구 있단다. 동네두 꼭 저 연못과 마찬가지야. 겉으로 보면 모두 즐겁구 평화한 듯하지만 속에는 모든 죄악과 진애가 들끓는 그야말루 경문에 아로새겨 있는 글자 그대루 오탁의 사바니라.
도념 아니에요. 모두들 그렇지 않대요. 연못 속에는 연근이라는 뿌럭지가 있지 이무기는 없대요.
주지 누가 그러든? 누가 그래?
도념 동네 사람들 올 적마다 물어 봤어요.
주지 그럼 동네 녀석들 하는 소리는 정말이구 내 말은 거짓말이란 말이지? 오! 이런 불가사리 같은 녀석을 봤나?

㉡ 주지, 펄펄 뛴다.

도념 스님, 바른 대루 말이지 저는 이 절에 있기가 싫습니다.
주지 (대노하며) 네 어미란 대죄를 지은 자야. 너에겐 어미라기보다는 대천지 원수라는 게 마땅하겠다. 파계를 한 네 에미의 피가 그 피를 이어받은 네 심줄에 가득 차 있으니까, 너는 남이 한번 헤일 염주면 두 번 헤어야 한다. 네 아비는 사냥꾼이었어. 하루에도 산 짐승을 수십 마리씩 잡어 부처님의 가슴을 서늘하게 한 대악무도한 자야. 냉큼 들어가지 못해?
도념 싫어요. 싫어요. 하루 종일 향불 냄새를 쐬면 골치가 어질어질해요.
주지 ……

주지, 뒤도 안 돌아보고 경내로 들어간다. ㉢ 쓸쓸하게 혼자 서 있는 도념. 잠시 후 미망인이 서서히 도념에게 다가온다.

도념 (미망인에게 매달리며) 저를 데려가 주세요.
미망인 그렇게는 못합니다. 스님은 이 절에 남아서 큰스님의 말씀 잘 듣고 있어야 합니다.
도념 (흐느끼며) 촛불만 깜빡깜빡하는 법당을 또 어떻게 혼자 지켜요? 궂은비가 줄줄 내리는 밤이나 부엉이가 우는 새벽엔 무서워 죽겠어요.
미망인 누구에게나 숙명 같은 것이 있습니다. 스님한테는 그게 숙명입니다. 전생의 인연입니다.

미망인, 도념을 누구에게 빼앗길 듯이 세차게 안고 운다.

미망인 내가 원체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스님을 데리고 갔다가 또 무슨 화를 만들지 난 그게 무서워요. 대신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보름날 달 밝은 밤엔 꼭 스님을 보러 오지요.

미망인, 우는 도념을 달래가지고 원내로 들어간다. 주위는 차츰차츰 어두워진다.

#133 산문 밖

은은한 범종소리 아득히 번져간다. 흩날리는 초설을 맞으며 초부, 나무를 안고 나와 지게에 얹고 담배를 한 대 피운다. 슬픈 듯한 표정으로 범종소리를 들으며 꿈쩍 않고 앉아 있다. 길게 내 뿜는 담배 연기. 이윽고 종소리 그친다. 도념, 고깔을 쓰고 바랑을 걸머쥐고, 깽매기를 들고 나온다.

초부 ㉣ (지게를 지고 일어서며) 지금 그 종, 네가 쳤니?
도념 그럼은요. 언제 내가 안 치고 다른 이가 쳤나요?
초부 밤낮 나무해 가지고 비탈 내려가면서 듣는 소리지만 오늘은 왜 그런지 유난히 슬프구나. (일어서다가 도념의 옷차림을 발견하고) 아니 너 갑자기 바랑은 왜 걸머지구 나오니?
도념 이번 가면 다신 안 올지 몰라요.
초부 왜? 스님이 동냥 나가라구 하시든?
도념 아아니요. 몰래 나가려구 해요.
초부 잘 데도 없을 텐데, 어딜 간다구 이러니? 응, 갈 곳이나 있니?
도념 ㉤ 세상 끝까지 다 돌아다닐 거예요. 뭐.
초부 하 얘, 그런 생각 말구, 어서 가서 스님 말씀 잘 듣구 있거라.
도념 …….
초부 어머닐 찾기나 했으면 좋겠지만 찾지두 못하면 어떡할려구?
도념 꼭 찾을 거예요.

초부 가려거든 빨리 가자, 퍽퍽 쏟아지기 전에. 이 길루 갈 테니?

도념 비탈길루 가겠어요.

초부 그럼 잘 가라, 난 이 길루 가겠다.

도념 (합장하며) 네, 안녕히 가세요.

초부, 나무를 지고 내려간다. 도념, 두어 걸음 나갈 때 법당에서 주지의 독경 소리. 발을 멈추고 생각난 듯이 바랑에서 표주박을 꺼내 잣을 한 웅큼 담아서 산문 앞에 놓는다.

[A] **도념** (무릎을 꿇고) 스님, 이 잣은 다람쥐가 겨울에 먹으려구 등걸구멍에다 모아둔 것을 제가 아침에 몰래 꺼내 뒀었어요. 어머니 오시면 드리려구요. 동지섣달 긴긴 밤 잠이 안 오시어 심심하실 때 깨무십시오. (산문에 절을 한 후) 스님, 안녕히 계십시오.

멀리 동리를 내려다보며 길게 한숨을 쉰다.

#134 신작로

산사에서는 목탁과 주지의 염불소리만 청정히 들리는데 눈은 점점 펑펑 쏟아지기 시작한다. 도념, 산문을 돌아다보며 돌아다보며 비탈길로 내려간다.

– 주경중 각색, 「동승」 –

43. 윗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초부는 절을 떠나는 도념의 처지를 염려하고 있다.
② 미망인은 도념과의 인연을 계속 이어가기를 희망하고 있다.
③ 도념과 주지는 세상이 악하고 더러운 곳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④ 도념은 부모의 죄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하는 자신의 숙명을 거부하고 있다.
⑤ 주지와 미망인은 도념이 절에 남는 것이 도념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44. ㉠ ~ ㉤ 중, <보기>의 촬영 기법을 적용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부감(俯瞰: High-angle)은 카메라를 대상보다 높은 데 위치시켜 위에서 아래로 향해 찍는 기법이다. 주로 대상을 실제보다 작고 나약하게 보여 주어 대상의 외로움, 무력감, 인간의 왜소함 등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45. <보기>는 [A]를 소설화한 것이라고 할 때, <보기>와 [A]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 보 기 〉

"하늘이 온통 뿌연데, 서둘러 내려가야겠다. 이 길로 갈 테냐?"
"아니요, 비탈길로 갈래요. 그 길이 빨라요."
"그래라, 건강하고, 몸조심하거라."
"안녕히 계세요."
도념은 초부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바랑에서 잣을 한 움큼 꺼내 산문 앞에 놓고 절을 올리며 말했다.
"스님, 동지섣달 긴긴 밤에 잠 안 오시고 심심하시면 깨무세요."
어느덧 하늘도 잿빛으로 변하여 사방이 어두워졌다. 천천히 흩뿌리던 눈발도 빠른 속도로 드세어졌다. 바람도 거세어져 우는 소리를 내었다. 도념은 이따금 암자 쪽을 돌아다보며 눈 쌓인 비탈길을 걸어 내려가며, 힘겹게 발걸음을 내딛다가 미끄러져 넘어졌다.
도념은 누워서 펑펑 쏟아져 내리는 눈발을 지켜보다가 눈을 감았다. 순간 혼자라는 생각에 외로워졌다. 하지만, 감은 두 눈 속에서 사랑하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까닭 모를 편안함을 느끼며 미소를 지었다.

① <보기>와 달리 [A]는 배경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② <보기>와 달리 [A]는 장면을 현재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③ <보기>와 달리 [A]는 공간 변화를 장면 단위로 제시하고 있다.
④ [A]와 달리 <보기>는 서술자가 사건을 제시하고 있다.
⑤ [A]와 달리 <보기>는 인물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확인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